

여가시간의 동시적 활동 분석을 통한 성차 연구

Gender Differences of Leisure Time based on Simultaneous Activities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Yoon, So Young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Kim, Hyun

〈목 차〉

- | | |
|-----------------|------------|
| I. 도입 | IV. 분석결과 |
| II. 여가시간의 성차 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eisure time. It uses time diary for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s(10 years old over) collected in 2004 by KNSO. This time use surveys provide information about a primary activity and a secondary activity (that is simultaneous activity accompanying the primary activity). The results was that married women experience less of leisure time and more contaminated leisure time by a secondary activity(especially household labor) than married men. This research presents that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quantity and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discrepancies persist in the experience of leisure time.

Key Words : 여가시간량(quantity of leisure time), 여가의 질(quality of leisure), 동시적 활동(simultaneous activity), 여가경험의 성차(gender differences of experience of leisure)

* 주저자, 교신저자 : 윤소영 (soyoung@kcti.re.kr)

I. 도 입

“여가시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점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제약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Hochschild, 1997), 남성들과 달리 일, 여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책임과 싸우고 있다(Bryant와 Zick, 1996)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인 성차연구는 여성들이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에게 비해 직업지위나 임금구조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Blau, Ferber 그리고 Winkler, 1998), 여성들의 시장노동 참여 증가가 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이중부담의 압박을 증가시킨다(Hochschild와 Machung, 1989)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가와 관련하여 여성의 전체 노동시간(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시간 결합)의 증가는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즉 자녀의 존재가 가사노동의 전체적인 요구를 증가시켜서 자녀가 많거나 어린자녀가 있을수록 자유시간을 덜 가지는데, 특히 부모의 역할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자유시간의 양과 질을 더 많이 억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시장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가용한 자유시간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일하는 엄마들은 시간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위해 가사일과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까닭에 고용으로 인해 여가의 감소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Mattingly와 Bianchi, 2003).

한편, “여가의 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을 낳는다. 여성들은 가정생활의 관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의무와 별도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따

로 갖는 것은 종종 어렵다(Deem, 1987). 가족에 대한 의무나 관리적 역할은 여성들에게 개인 여가와 자율적인 여가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Samuel, 1992; 윤소영, 2004에서 재인용),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어머니들에게 여가보다는 일로 경험되거나(Shaw, 1992) 다른 비여가적 활동과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Bittman과 Wajcman, 1999; Mattingly와 Bianchi, 2003). 이러한 여가생활의 질적 차이는 여가시간량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유시간에서의 젠더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여가시간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시간배분상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여가시간량의 성차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가의 질 차원에서 성차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 활동에 여가활동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차적 활동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동시적 활동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며, 특히 후자의 질적 측정을 위해 이차적 활동에 대한 시간량 분석과 시간대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Bittman과 Wajcman(1999), 그리고 Mattingly와 Bianchi(2003)이 각기 호주와 미국의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활동에 의한 여가활동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별에 따른 여가 공정성의 평가에서 새로운 차원을 추구한 것으로 기대된다.

II. 여가시간의 성차 연구

1. 성별 노동분담과 여가시간

성별 노동분담에 따른 시간배분의 문제는 유급노동, 무급노동, 그리고 여가시간에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임금을 벌어들이는데 관여된 유급노동과 무급의 의무적인 가사노동과 자녀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무급노동은 성별 노동분담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Becker(1985)는 남성이 유급노동에 전문화되고 여성이 무급노동에 전문화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여권주의자들(England, 1982; Oppenheimer, 1997)은 성별 노동분담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체계에 기초하며, 따라서 무급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보기 활동은 어떤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차에 근거하여 배분된다고 주장한다.

맛벌이 부부 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이나 성별 전문화 이론에 대해 반박한다(Oppenheimer, 1994).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성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시장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성차에 따른 가족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성차에 따라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전문화된 여성은 시간의 선택과 경험에 있어서 남성들과 다른 선택과 경험을 하게 된다(Bittman과 Wajcman, 1999).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차이는 여가에 대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특성에 의하여 남성은 가정 외부의 경제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여성은 가정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사회활동 참여 양상 및 여가

경험의 차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하였다(정영린·김우성, 1996).

특히 성차와 여가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가정생활 및 가족원간의 관계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진다(Shaw, 1997). 예를 들어 여가제약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과 여가가 공존하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그 공간이 구속되기 쉽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들에 비해 가계에 대한 책임과 가족들에 대한 헌신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아직까지 아이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매일의 주요한 책임으로 여겨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남성 여가의 경우 아내들이 일을 하더라도 보통은 남성이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써 정의되므로 그들은 생계수단 역할에서의 에너지 소멸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를 단순히 휴식, 기분전환 혹은 자기표현의 기회로 여기게 된다(윤소영, 2003). 그 결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도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여가보다는 일로 경험되고(Shaw, 1992),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여가활동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는 것(Freysinger, 1994)으로 보고 된다.

여권주의 시각에서 여가시간은 여성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개념인데, 이는 무급의 가사노동의 의무와 여가활동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Griffiths, 1988). 여성들은 자녀돌보기 의무로 인해, 남성과는 다른 형태의 하루 일과를 보내며, 특히 시장노동과 자녀돌보기 의무를 병행하는 취업주부들은 미혼여성이나 전업주부와는 다른 여가생활을 경험하게 된다(Mattingly와 Bianchi, 2003).

2. 여가의 동시적 활동과 성차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시간은 일과 여가, 공적시간과 사적시간,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 등 선형적 시간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여성의 시간이 전형적으로 결합된 다중의 활동, 즉 특정 시간에 순차적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과 연관되기(Adams, 1995; Bittman과 Wajcman, 1999에서 재인용) 때문이다. 여가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의 여가경험은 남성과 다르며 다중적이고 중복된 활동으로부터 뚜렷이 구분해내기 어렵다. 이때 여성의 여가시간의 질에 대한 강조는 여가에서 성차 개념으로 새롭게 부각된다. 즉 여성들의 여가시간의 성차문제는 남성들과 비교해 볼 때, 양적 측면에서 일차적 활동의 여가시간의 양이 적다는 문제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이 다른 활동들의 산만한 개입이나 분열로 인해 순수한 여가활동(pure leisure activity)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결국 여가경험은 동시적 활동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ittman과 Wajcman(1999), Mattingly와 Bianchi(2003)는 호주와 미국의 시간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작업에 의한 여가의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순수한' 여가시간은 일차적 활동이 여가활동으로 보고된 경우 이차적 활동이 보고되지 않거나 여가활동인 경우의 시간주기를 말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 호주와 미국 모두 여성들이 그러한 순수한 여가시간이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여가경험이 남성과 구분되어 동시적 활동에 의한 오염이 많은 것은 가사노동과 자녀돌보기 등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초래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여가시간에 있어서 오염된 경험을 가지며, 아버지보다 어머니들

이 여가시간동안 자녀에 대한 전적인 의무를 더 많이 가진다는 증거는 "여가의 질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편안하고 기분좋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며, 이러한 여가시간은 종종 다른 활동이나 여성들의 무급 노동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오염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며, 특히 여가시간 사용에서 성차의 존재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주요활동으로서 여가활동의 시간량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차적 활동으로서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과의 결합 비율은 어떠한가?

셋째, 여가시간 경험의 질에서 성차이는 존재하는가?

2.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전국 약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2004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 가구원은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식 조사방법(after-coded diary)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행동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37개 소분류로 나타내고 있다.

‘2004생활시간조사’의 원 자료는 시간량 자료와 시간대 자료 모두 사용하였다¹⁾. 시간량 자료는 일차적 활동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시간량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시간대 자료는 10분 단위의 시간대별로 일차적 활동에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차적 활동을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모든 자료의 남성과 여성은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전체 시간 일지(N=63,268) 가운데 59.6%인 37,732개의 일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분석 대상에서 유배우 기혼남성은 18,358개 일지(48.7%), 유배우 기혼 여성은 19,374개 일지(51.3%)에 해당된다.

3. 분석방법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특히 여가시간의 사용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 활동에 대한 시간량 자료를 분석한다. ‘2004 생

〈표 1〉 200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와 분석에 포함된 활동

2004년 생활시간조사		본 분석에서 포함된 활동명
대분류 부호	행동	
1	개인유지	개인관리
2	일	유급노동
3	학습	-
4	가정관리	가사노동
5	가족보살피기	가사노동
6	참여 및 봉사활동	-
7	교제 및 여가활동	여가
8	이동	-
9	기타	-

활시간조사’의 9개 대분류 체계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활동중심의 시간분석을 위해 학습행동과 이동 행동은 제외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참여 및 봉사활동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소분류 활동의 일부가 여가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무급의 가사노동활동은 가정관리 행동과 가족보살피기 행동을 합하여 분석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동시적 활동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가지 활동이상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이 여가를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는가의 문제는 여가의 질적 문제이다. 이러한 질적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시간사용 조사에서 일차적 활동과 이차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차적 활동 분석은 시간량과 시간대 분석 모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차적 활동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4가지의 이차적 활동과 결합되거나 또는 어떠한 이차적 활동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여가활동과 다른 활동의 결합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나타나는 시간일지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도 여가활동의 특정한 질을 묘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Bittman과 Wajcman,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가결합이 나타나는 시간일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도표를 분석한다.

〈표 2〉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의 가능한 결합

일차적 활동	이차적 활동
여가	해당무
여가	여가
여가	유급노동
여가	가사노동
여가	개인관리

1) 시간량 자료는 국민들의 하루 24시간 사용이 어떤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행위에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며, 시간대 자료는 ‘어느 행위를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느냐’를 조사한 것이다.

일차적 활동과 이차적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는 활동별 평균값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일차적 활동과 이차적 활동의 결합에 대한 시간대 분석은 시간대별 결합 행동에 따른 시간일지의 수로 구분하며, 이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제시한다. 모든 통계적인 절차는 SPSS 13.0 for windows(Ver. 12.0)로 진행되었다.

IV. 분석결과

1. 생활시간량과 여가시간량의 성차 분석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개인관리, 유급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량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혼 여성은 기혼 남성과 비교해 볼 때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의 가사노동 활동을 제외한 개인관리, 유급노동, 여가활동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30분 가량인 반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1분 가량으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량에 있어서 기혼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활동의 시간량 차이 (일차적 활동)

일차적 활동	기혼 남성		기혼 여성		t 값
	mean	S.D.	mean	S.D.	
개인관리 시간	640.91	115.592	624.12	105.298	14.725***
유급노동 시간	310.60	239.336	165.07	213.611	62.191***
가사노동 시간	41.14	71.588	271.44	159.789	-182.236***
여가활동 시간	320.30	191.040	275.46	156.276	24.876***

*** p<.001

남성은 5시간 20분 가량, 기혼 여성은 4시간 35분 가량으로 약 45분의 차이를 나타냈다.

2. 여가 질 경험의 성차 분석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 가운데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시간일지 전체(37,732)에서 99.4%(37,508)는 일차적 활동에 여가활동을 10분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일차적 활동에 여가활동을 응답한 시간일지에서 이차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활동의 결합 빈도는 <표 4>와 같다. 86.3%의 시간일지는 단순하고 다른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여가활동을 보고하며, 74.6%의 시간일지는 한 가지 여가활동이 다른 여가활동과 결합되는 형태를 포함한다. 여가활동과 자기관리의 결합은 51.7%에서 보고되며,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의 결합은 4.9%, 여가활동과 유급노동은 0.7%에서 보고되었다.

<표 4>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의 결합 빈도

일차적 활동	이차적 활동	기록일의 비율
여가	해당무	86.3 %
여가	여가활동	74.6 %
여가	유급노동	0.7 %
여가	가사노동	4.9 %
여가	개인관리	51.7 %

일차적 활동을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동시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차적 활동 참여 시간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가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이차적 활동의 결합은 여가활동, 개인관리, 가사노동, 유급노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지 여가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가활동과 결합되는 경우, 기혼 남성이 기혼여성보다 3분 가량 더 많은 시간을 나타냈다. 이차적 활동에서 가사노동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량은 기혼여성이 2분 27초인 반면, 기혼 남성은 42초에 그쳐서 그 차이는 1분 45초 가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남성이나 기혼 여성 모두 여가활동은 다른 여가활동과 결합되거나 이차적 활동의 결합없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급의 노동시간과 결합되는 비율이 가장 낮음을 나타낸다. 특히 다른 시간 결합과 달리 가사노동시간과 결합되는 비율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에 비해 더 높고 사용시간량도 더 많다는 결과는 여성의 여가활동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개입이나 오염도가 남성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의 동시적 활동 차이(이차적 활동)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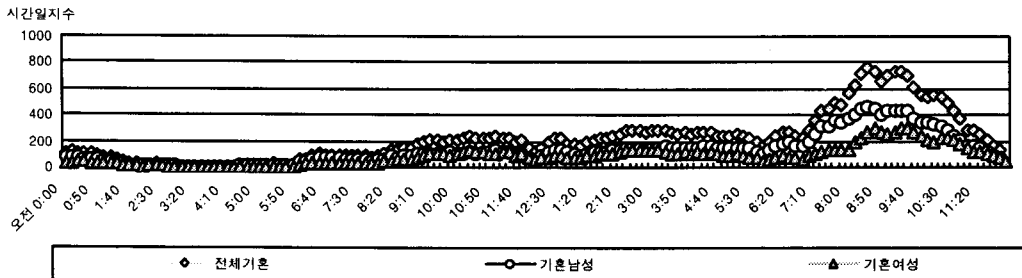
이차적 활동	기혼 남성		기혼 여성		t 값
	mean	S.D.	mean	S.D.	
개인관리 시간	14.98	23.431	14.59	21.658	1.704*
유급노동 시간	0.22	3.123	0.13	2.855	2.629**
가사노동 시간	0.70	7.019	2.45	13.404	-15.916***
여가활동 시간	66.63	80.892	63.33	72.781	24.56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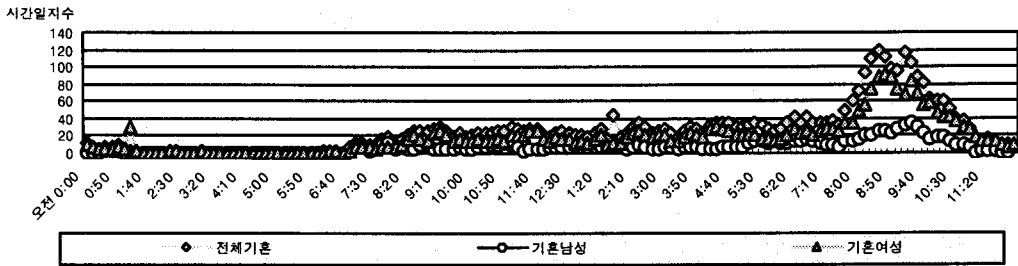
한편, 결합활동의 내용에 따라 여가활동과 여가활동, 여가활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결합에 대해 시간대별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이다.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결합은 오후 7시 이후 참여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오후 8:30~9:00 사이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결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7:00~10:30 사이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의 결합은 오후 8시 이후 참여자수가 증가하며, 8:30~9:20 사이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의 결합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결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후 8:40에 기혼여성이 보고한 시간일지의 수는 92개 인 반면, 기혼 남성이 보고한 시간일지는 25개로 약 3.7배나 더 많은 비율이다. 즉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결합과는 달리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의 결합에서 여성의 여가활동은 무급의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개입되고 오염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결합 차이 : 시간대별 분포



〈그림 2〉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의 결합 차이 : 시간대별 분포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가시간의 양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와 “여가의 질에서 성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 여가시간의 양과 질에서 성차이는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적었으며, 여성들이 이차활동에서 가사노동으로 인한 개입과 오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무급의 가사노동과 결합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남성의 여가는 여성보다 방해로 덜 받는다. 여성의 여가의 분절된 특성은 여가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여가시간을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자녀돌보기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여가시간이 순수한 여가의 개념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경우 무급의 가사노동의 경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의 연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일부 여권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여권주의 학자들은 여성들이 다중적이고 중복된 활동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가에서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한다고 믿어왔다. 또한 호주와 미국에서 여가시간의 양과 질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

차이를 분석한 Bittman과 Wajcman(1999), 그리고 Mattingly와 Bianchi(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가족내에서 성별에 따른 전문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분석에서 나타난 시간자료의 증거는 여성들이 가족돌보기와 가정관리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여전히 가진다는 것이 사실임을 나타냈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서의 성차뿐 아니라 자유재량의 여가시간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성별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일지에 근거해서 시간량 분석과 시간대 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의 동시적 활동을 분석하고, 이로써 여가경험의 질적 평가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가시간의 경험에서의 질적 차이는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여가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이중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매일 활력을 갖고 자신에게 기운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더 적은 이유를 설명하고, 여가시간의 경험을 통해 시간압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접수일 : 2007년 4월 24일
- 심사일 : 2007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5월 04일

【참 고 문 헌】

- 1) 정영린, 김우성(1996). 대도시 성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13, 83-92.
- 2) 윤소영(2003). 주5일 근무제와 가족자원의 변화 :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81-97.
- 3) 윤소영(2004). 주5일 근무제와 가족복지문제. 여가학연구 2(2), 39-51.
- 4) Becker, G. S.(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33-58.
- 5) Bittman, M. & Wajcman, J.(1999).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PRC Discussion Paper No 97*, 1-36.
- 6) Bryant, W. K. & Zick, C. D.(1996). Are we investing less in the next generation?. Historical trends in time spent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Family Economics Issues* 17, 365-392.
- 7) Deem, R.(1987). Unleisured Lives : Sport in the Context of Women's Leisur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0, 423-432.
- 8) England, P.(1982). The failure of human capital theory to expla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 358-370.
- 9) Freysinger, V. J.(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 Further evidence of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10) Griffiths, V.(1988). From 'Playing Out' to 'Dossing Out' : Young Women and Leisure. 48-59 in *Relative Freedoms: Women and Leisure*. edited by Erica Wimbush and Margaret Talbot. Open University Press.
- 11) Hochschild, A. R. & Machung, A.(1989). *The Second Shift*. Viking. New York.
- 12) Mattingly, M. J. &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81(3), 999-1030.
- 13) Oppenheimer, V. K. (1994). Women's rising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industri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 293-342.
- 14)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 15) Shaw, S. M.(1992). Dereifying family leisure : An examination of women's and men's everyda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amily time. *Leisure Sciences* 14(3), 271-286.
- 16)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17) 통계청(2004).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